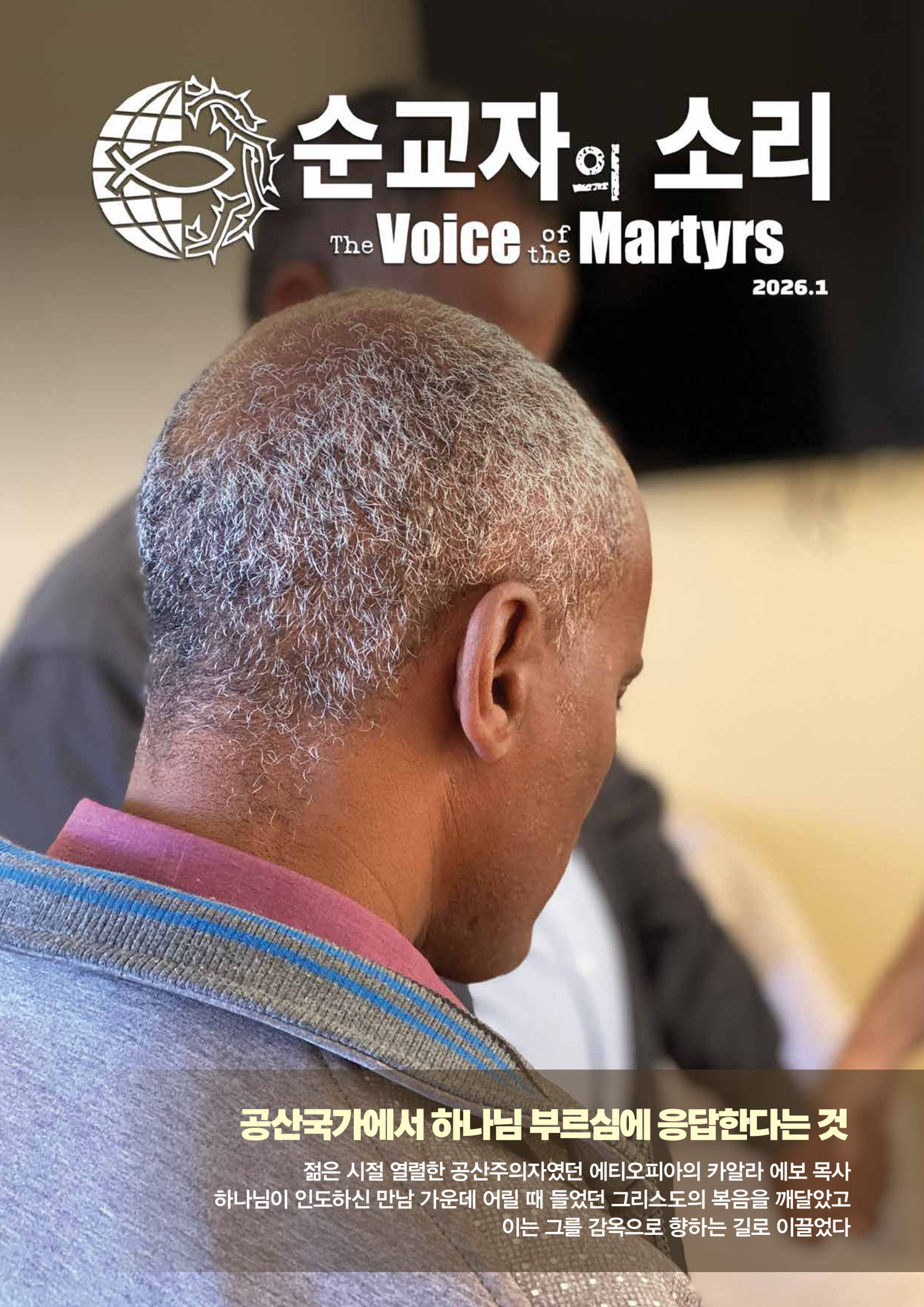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6.1



공산국가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

젊은 시절 열렬한 공산주의자였던 에티오피아의 카알라 에보 목사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 가운데 어릴 때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고
이는 그를 감옥으로 향하는 길로 이끌었다

폴리 목사 부부가 전하는 글

그리스도, 아니면 공산주의

1970년 호주에서 진행된 한 TV 인터뷰에서 리처드 웜브란트Richard Wurmbrand 목사는 공산주의가 교회에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음부의 권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결코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오히려 교회의 존재로 인해 위협을 받는 쪽이지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공산주의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신실한 증언은 공산주의 정부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담대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왕국의 통치 아래서 견뎌야 할 그 어떤 고난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훨씬 더 중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실한 증거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서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힘을 줍니다. 우리 모두 공산주의의 무신론적 뿌리와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기도와 실천 가운데 늘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소식지는 북한과 중국에 집중하여 발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호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 그리고 공산주의 통치 하에 있던 시절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간증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공산주의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서는 공산주의 쿠바의 야구 선수였다가 목사가 된 호엘Joel 목사에 관한 독점 기사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CAN ME!

생동하는 교회의 한 광인

전도유망한 학생에서 저명한 과학자, 그리고 기독교 목사로 변모하는 인생 여정은 분명 쿠바 공산당 당국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모이세스 데 프라다Moises de Prada에게는 사실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기독교 사역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부터 이미 모이세스가 주변에 안겨주던 당혹스러움이 그 암시인 셈이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성장한 그는 자신의 믿음을 전혀 숨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공산주의 쿠바 체제에서 과학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모이세스가 회상하며 말했다.

"쿠바 공안 경찰들에게 계속 불려다녔어요. 교회에 가는 건 좋지 않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라면서 그들은 나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들은 내게 교회에 가는 걸 그만두고 혁명에 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모이세스가 말했다.

모이세스는 공산주의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랐다. 12년 동안 과학자로 지내던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심을 느꼈다. 1996년, 모이세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를 이끌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반대가 더욱 거세졌다.

공산당 간부들과 국가 안보 요원들이 교회를 찾아와 모이세스를 괴롭히고 위협했다. "주님은 나를 강철처럼 단련하셨어요. 위기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어느 날, 자신을 겁박하던 경찰관 중 하나가 권총을 뽑아드는 모습을 본 모이세스는 그들이 사무실이나 거리에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위협을 무시한 채 그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다. "그 순간부터, 정말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어요"라고 모이세스가 말했다.

가정 방문 전도로 도시를 정복하다

당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모이세스 목사는 오로지 그가 살던 도시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17만 7천 개의 문'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총 17만 7천 가구가 거주하는 도시 전체를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지도자를 배정했다. 각 지도자는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맡은 구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했다. 그의 교회는 몇 년 만에 2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고, 교회 지도자들은 새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8개의 교회를 더 개척해야 했다.

이러한 가정 방문 형식의 전도 활동이 고조되면서 애초 3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전도 행사가 일주일 이상 연장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국은 이 사건을 기회로 모이세스를 침묵시키기로 작정했다.

"경찰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로 데려갔어요." 모이세스가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그러한 전도 활동을 진행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교회가 당국으로부터 그런 허가를 받는 일은 전에도,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모이세스 일행은 석방되면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새로운 장소로 옮겨갔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도 행사는 8일 동안 이어졌지요.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교인 중 하나는 새 담임목사의 이러한 전도 방안을 처음 들었을 때, 자신과 다른 교인들 모두 의구심을 품었다고 고백했다. 당시를 떠올리며 그가 말했다. "우린 모두 '이 목사님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했어요."

소망의 메시지

전도 행진과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자 이 또한 정부에겐 위협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집회를 엄격히 금지했다. 하지만 모이세스 목사가 소속된 목회자 모임은 종려주일 행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교회 내에 이미 많은 국가 보안 요원들이 잠입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들은 행진에 대한 계획을 교인들에게 미리 공개할 수 없었다.

모이세스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이번 주일에는 편한 신발을 신고 오라고만 말해주었어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동 경로를 기획하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작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자 깜짝 발표를 했다.

모이세스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 거리로 나가 행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행진하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행렬에 합류했고, 성도들은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도시 전체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했다.

공산당 당국은 이 행진을 이끈 지도자들을 반정부 세력이라고 비난했지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메시지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행진에 참여한 모든 교회가 범법 행위에 대한 혐의를 비롯해 전보다 더한 협박을 받게 되는 등 여러 후폭풍을 겪어야 했지만, 모이세스는 여전히 그날을 회상하면 기쁨을 느낀다. "그날 그 광경은 정말 볼 만했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란한 장면이었습니다."

▼ 모이세스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도시의 모든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해 복음을 전했다.

▲ 지역사회 전도 활동 중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나눠주고 있는 전도자

▲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쿠바에서 복음 선포에 헌신하고 있는 모이세스 목사 부부. 모이세스는 "우리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끝까지 해내다는 것

7년 전, 모이세스는 교단의 지도부를 맡으면서 또 다른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 아바나Havana로 이주했다. 이전 교회에서 너무나 큰 기쁨과 승리를 경험했기에 이주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아바나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국가보안국으로부터 온 소환장이었다. 당국자들은 모이세스가 있던 지역의 죄가 치유되었겠다고 축하하면서 비아냥거렸고, 그를 계속 감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모이세스는 많은 쿠바인이 더 자유롭고 나은 삶을 꿈꾸며 쿠바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이민을 부추기는 욕망과 두려움을 이해하면서도, 그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가르친다. 그는 히브리서 12장 1-2절을 인용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핍박이 너무 가혹하다 느끼는 이들에게 모이세스가 무관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역시 쿠바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음을 고백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에 남아있을 가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쿠바에 남게 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쟁기를 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소망은 광장과 공원, 거리, 경기장이나 병원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내게는 다른 어떤 것도 그러한 동기가 되어줄 수 없어요."

2026년
1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1 신정
				콜롬비아 위험한 오지에 성경을 공급하는 사역자들을 지키시고 지혜 주시기를
4	5	6	7	8
아프가니스탄 무슬림이 다수인 현지에서 전도자들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크라이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베냉 부두교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	니제르 오지에서 마을 전체를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자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 단체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기독교인 과부 19명을 위해
11	12	13	14	15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네팔 힌두교 극단주의 집단 지도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은 라지 목사를 위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불투명한 현실과 두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해 (대하 20:12)	우즈베키스탄 최근 사역 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이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토고 믿음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풀라니족 성도를 위해
18	19	20	21	22
브루나이 브루나이 교회가 강건해지도록 (엡 3:16-19)	이집트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도록	모잠비크 모든 성도들이 현지 방언들로 제작된 귀한 오디오 성경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드 총인구의 25%인 기독교인이 무슬림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에리트레아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5	26	27	28	29
미얀마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하는 최전방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시기를	베네수엘라 최전방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기쁨과 힘 주시기를	말리 전도를 이유로 살해 위협을 당하여 피신해야 했던 목회자들을 위해	소말리아 교회 건물이 없는 소말리아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기회를 갖도록	우간다 최근 공격당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경험하도록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2	**3**
베트남 복지와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도록	에티오피아 현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9	**10**
르완다 교회와 사역 단체를 감시하는 당국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말라위 가난한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은 성경이 공급되도록
16	**17**
시에라리온 악령을 숭배하는 비밀집단이 주님의 진리에 대항할 힘이 없음이 드러나도록	튀니지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릴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를
23	**24**
부르키나파소 믿음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된 성도들을 지키시고 격려하시기를	이란 교도소나 가택에 연금된 많은 성도의 석방과 관련된 사역을 위해
30	**31**
모잠비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잔혹함을 목격한 후, 예수님께 나온 이들을 위해	탄자니아 자주 공격당하는 펨바섬 기독교인들의 안전과 평강을 위해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원해주세요!

- **라오스** 기독교 마을 주민들의 집이 불에 타고 파괴되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이로 인해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의 집을 재건하도록 지원했습니다.
- **베트남** 목회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딴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여행하는 목회자들에게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오토바이를 지원했습니다.
- **중국** 기독교인들이 복음 사역으로 인해 괴롭힘과 체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아버지가 복음으로 인해 투옥된 가정들에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 **북한** 기독교인들은 체포되어 강제수용소로 보내진 후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훈련, 성경 배포, 수감자나 순교자들의 가정 지원 등을 통해 지하교회를 직접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후원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기금 중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CIND)' 부문에 정기적으로, 또는 일시 후원해 주시면, 북한과 중국, 라오스, 베트남, 쿠바 및 공산주의 영향권 국가에서 발생하는 핍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께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공산주의'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에티오피아

감옥, 성경 학교가 되다

에티오피아의 공산주의자 중 하나인 카알라 에보Caala Ebo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카알라는 "기독교인들이 제국주의를 옹호한다고 생각했어요. 난 어떤 종교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공부했고,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몰두했어요"라고 말했다.

고등학생 시절, 카알라는 공산주의 청년 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한번은 예수님을 막 믿게 된 동급생에 맞서 다투는 일도 있었다. 카알라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 애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들의 종교는 거짓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러한 카알라의 주장은 그 동급생의 주장만큼 설득력이 없었다. 카알라는 그 논쟁에서 자신이 졌다고 느꼈다. 좌절감과 분노에 차 있던 카알라는 그 동급생을 공산당 지도부에 신고했다. "그를 감옥에 넣지 않는다면 공산주의로 전향하지 않을 거라고 고발했습니다." 카알라가 말했다.

그 동급생은 결국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간 감옥에 갇혔고, 카알라는 자신의 말만으로도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어요. 훌륭한 공산당 정보원이 된 거지요."

공산주의자이기만 하진 않았다

1974년 군사 쿠데타로 오랫동안 에티오피아의 황제로 군림했던 하일레 셀라시에Haile Selassie가 축출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다. 카알라는 그 공산주의 영향권 아래서 자라났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들의 무신론적 이념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카알라의 아버지는 주술 의식과 에티오피아식 기독교 전통이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카알라는 지역 내 행해지던 영혼 숭배에 참여함으로써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그러던 중, 기독교 선교사들이 카알라네 마을에 찾아왔다. 카알라는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 지도자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어요. 어렸을 때 나 또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앉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들었던 복음은 성인이 되어 무신론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었다. "하나님은 없다고 여러 번 되뇌었어요." 카알라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마치 자신이 진실 아닌 것을 남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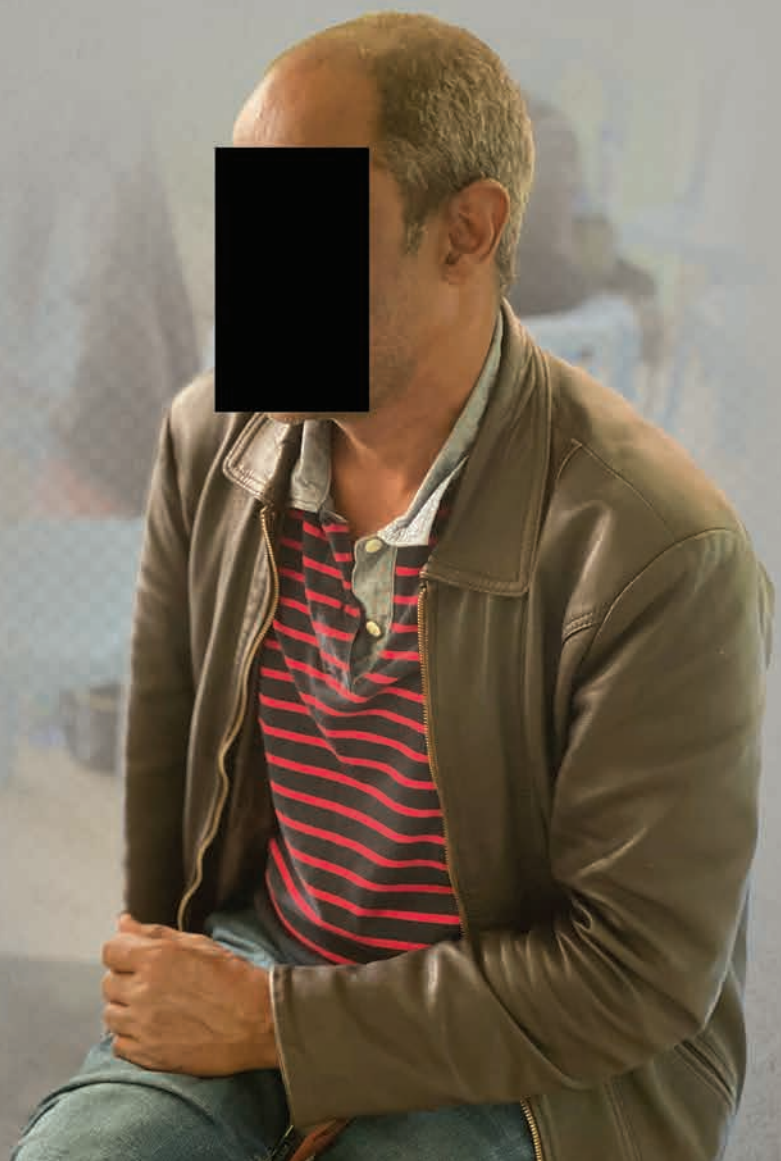
어느 날, 카알라가 근무하던 정부 청사 사무실에 한 외국인 선교사가 찾아와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카알라는 다소 놀랐지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카알라는 시편 92편을 인용하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크고 그의 생각은 매우 깊다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시편으로 쓰인 기독교 찬송을 불렀다.

그러자 선교사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다. 고개를 든 그는 카알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선교사의 선포를 듣자마자, 카알라는 감정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선교사는 떠났고, 이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후 카알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고, 성경을 찾아 몇 시간 동안 읽었다.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카알라는 어린 시절 친구 중 기독교인인 친구를 찾아가 성령에 대해 물었다. 친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을 채워주신다고 설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었다.

친구와의 대화를 마친 카알라는 곧바로 술과 담배를 끊었고, 에티오피아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마약성 식물인 카트khat도 더는 씹지 않았다. "나는 울며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카알라가 설명했다.

카알라가 새로 찾은 이 신앙은 공산주의자 친구들의 분노를 샀다. "그들은 나를 증오하게 되었어요. 나를 때리고, 배척하고, 버렸습



1974년 집권한 군사 정권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한 에티오피아 군인들

니다. 함께 카트를 씹고, 함께 술 마시고, 함께 담배를 피우던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이후 그들은 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1991년, 에티오피아 공산주의가 붕괴했다. 에티오피아는 당시 수년간 내전을 겪었는데, 소련 자체가 분열되면서 쿠바와 소련으로부터 받던 지원마저 끊어진 것이다. 카알라의 옛 공산주의 동료들은 공산주의 정권 아래 그가 기독교인들에게 저질렀던 일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그를 공격하기로 했다.

한때 카알라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것처럼, 옛 동료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 "그들은 내가 공산당 정부를 위해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카알라가 말했다.

자신의 손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보냈던 그 감옥에 수감되면서, 카알라는 그곳에 갇혀 있을 기독교인들을 찾아 나섰다. "수감된 사람 중에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자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옥을 통해 내게 아주 좋은 아버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카알라는 말했다.

믿음이 점차 성숙해지면서 카알라는 마침내 감옥 안에서 모이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 "감옥 생활은 내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진짜 복음으로 무장되었어요." 카알라가 말했다.

당국은 끝내 카알라에 대한 많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그는 3년간의 수감 생활 후 석방되었다. 그 무렵, 그는 주님이 자신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다.

재회, 그리고 기도

카알라는 자신이 처음 감옥에 보냈던 기독교인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동급생은 에티오피아의 한 외딴 지역을 섬기는 목사가 되어 있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카알라는 그 목사 친구를 찾아가리라고 결심했다. "내가 정말로 회심했는지를 확인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라고 카알라는 말했다.

그 친구와 재회하던 날, 그것은 원수가 아닌 형제들의 만남이었다. "그 친구는 매우 기뻐하며 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했어요. 정말 다정히, 눈물을 흘리면서요."

현재 카알라는 에티오피아 선교사와 목회자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 중 다수는 무슬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복음을 전한 대가로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다. 카알라의 공식적인 역할은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지만, 그가 열정을 품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그는 더 많은 에티오피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레드 테러 순교자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에티오피아 공산당의 선전용 책자들

2026 상반기 드디어 대전에서 지하신학교가 열립니다!

지하신학교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신구약 말씀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나를 구원하기위해 돌아가신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계시된 '큰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2025년 지하신학교 참석자들의 피드백

"교회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이다. 순수한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학교다" - 문 O목사

"1강만 들어도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 복음에 대해 배우고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 - 김OO집사

"종교의 자유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이었고 진짜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는 성도라면 꼭 한 번 들어보도록 추천한다" - 김OO집사

신청방법 및 강의내용

- 6개월 과정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월 1회
  (1/24, 2/21, 3/21, 4/18, 5/16, 6/20)
  ※ 날짜 변경시 2달 전에 미리 안내 드립니다.
- 훈련비 : 400,000원(6개월 과정, 식사 제공)
- 강 사 :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
  현숙 폴리 대표
- 장 소 : 순교자의 소리 대전 사무실
  (구체적인 사무실 정보는 등록 시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010-3151-2065 / 02-2065-0703

※ 지하신학교는 목회자와 성도, 모든 기독교인이 신구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훈련합니다. (별도의 학위는 없습니다.)

1/2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2/21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3/21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4/18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5/16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6/20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신|간|소|개|

실재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제자훈련 방법을 제시하는 책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에릭 폴리 지음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은 마태복음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개인, 가족, 셀그룹, 교회가 순종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제자훈련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리스도의 10가지 "사랑의 실천사역"(선행하기, 떡 나누기, 집을 열기, 치유하기, 용서와 화해 등)과 7가지 "경건의 행위"(내적인 영적 훈련, 즉 성경말씀 찾기, 기도, 예배, 베풀기 등)의 의미를 성경 원문에서부터 배우고 실천하게 도움으로써 기독교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한다. 12개월 동안 각 주제를 한 달씩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매년 반복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복음』

에릭 폴리 지음

순교자의 소리 지하신학교에서 강의한 '복음'이 드디어 책으로 출간되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 그 이상의 온전한 의미로 이해하고 그분의 재림을 향한 소망을 꿈꾸게 한다.

이 달의 |추|천|도|서|

『마르크스와 사탄』

리처드 웜브란트 | 10,000원

공산주의의 영적인 뿌리가 사탄 숭배에 있음을 증명한 책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10매 1세트 10,000원

공산주의에 대한 영적인 관점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보고서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많은 VOM 도서들 중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책임질 수 있는 도서들만 선택 및 번역하여 출판하며 수익금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신실한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10,000원 | 지하교회를 심으라 10,000원 | 지하교회로 살라 10,000원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회복을 위한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15,000원 | 온전한 헌신 1, 2 각 10,000원 |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15,000원

존 로스 성경 & 조선어 성경

조선어 스터디 성경 큰글자 30,000원 | 조선어 스터디 성경 (창세기/신약) 10,000원 | 21세기 존 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0,000원

북한 사역의 이해를 돕는 책

영웅의 여정 10,000원 | 믿음의 세대들 10,000원

리처드 웜브란트 목사의 저서 및 전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000원 | 웜브란트 15,000원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5,000원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여행자-복음 위해 사선을 넘은 자들 10,000원 | 역경의 길 위에서 10,000원 | 이란 – 희망과의 조우 10,000원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4988